

투데이

고흥 천경자 전시관 결국 폐관

관리소홀로 갈등 빚던 郡, 천 화백 작품 66점 모두 반환키로

고흥에 조성됐던 천경자 전시관이 개관 4년 여만에 문을 닫는다. 고흥군이 천경자 전시실에 전시중인 천 화백의 작품 66점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고흥군은 기증한 작품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작품 반환을 요구해온 천 화백 측과 1년 넘게 갈등을 빚어왔다.

고흥군은 19일 고흥군 종합문화회관 내 천경자 전시실(149㎡)에 전시중인 천 화백의 작품 66점을 돌려주기 결정하고 관련된 내용을 담은 공문을 천 화백 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또 "작품을 인도받은 뒤 작품 상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을 것", "작품을 인도받은 뒤에도 고흥군이 현재의 '천경자전시실'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홍보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합의서 초안을 덧붙여 발송했다.

지난 2007년 11월 1일 개관한 뒤 천 화백이 기증한 드로잉(55점)과 판화(11점) 등 66점의 작품을 전시해 남도의 우수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

김했던 전시관이 기증작품 반환으로 4년 여 만에 문을 닫게 되는 셈이다. 고흥군은 지역의 소중한 문화 유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시실 폐쇄는 고흥군과 기증자인 천 화백 측과의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천 화백 측은 지난 2010년 11월 고흥군에 '기증 협약 불이행에 따른 작품 반환 요청'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서를 발송한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쳐 작품 반환을 요구해왔다. 천 화백 측은 고흥군이 '양도받은 작품에 대한 상당한 관리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기증 당시 협약서 내용과 달리 관리를 허술하게 하면서 작품이 훼손됐다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전시실 전구를 교체하면서 작품에 손상을 입히는 할로겐 전구로 교체하거나 청소용품 등이 보관되는 창고에 작품을 보관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흥군은 관리에 최선을 다해온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남독

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며 반환을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은 1년 넘게 수차례의 내용 증명서를 교환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고흥군은 그러나 천 화백 측이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해결점을 찾지 못해 자치 최야의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양측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최근 반환을 결정했다.

하지만 천 화백 측은 고흥군의 합의안 대신, 조건 없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천 화백 측이 '양도받은 작품에 대한 상당한 관리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기증 당시 협약서 내용과 달리 관리를 허술하게 하면서 작품이 훼손됐다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전시실 전구를 교체하면서 작품에 손상을 입히는 할로겐 전구로 교체하거나 청소용품 등이 보관되는 창고에 작품을 보관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흥군은 관리에 최선을 다해온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남독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여수박람회 D-50 최종 점검 나선다

23일 정부지원위·조직위 현장 총출동 내달 종합리허설·비상상황 대처 연습

'여수세계박람회 D-50'(3월 23일)을 앞두고 정부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19일 "김환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정부지원위원회 회의와 조직위원회의 총회가 23일 여수박람회 현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지원위원회 회의에는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통일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

복지부·환경부·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또 국가정보원장, 국무총리실장,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전남도지사, 경남도지사, 여수시장도 참석해 박람회 준비현황과 기관별 추진 중인 지원사업 현황도 점검한다. 강동석 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조직위원회 총회도 이날 여수 2011년 회계를 결산하고, 개최국 전시관 등을 둘러본다.

다음달에는 여수에서 전국 부시

장·부지사 회의도 열려 박람회 범조성과 시·도별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행사가 가까워지면서 최대 11만 명의 모의관광객을 모집해 서비스와 운영 등을 점검하는 손님 맞이 여행연습과 종합리허설 등도 마련된다.

조직위는 다음달 28일(3만명), 5월 2일(5만명), 5월 5일(11만6000명)에 여수 인근 지역 군인과 경찰, 공무원, 학생, 평가단(시민·전문가), 희망자 등을 모아 박람회가 실제 열렸다고 가정하고 손님 안내부터 관람 후 퇴장까지 모든 것을 짚어본다. 또 환승주차장 이용, 셔틀버스 운영 등 교통문제와 자원봉사자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도 이날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4월 26일~27일에는 조직위 직원과 운영인력, 에버랜드·서울랜드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종합리허설도 진행된다. 이 리허설에서는 일상적인 전시관 운영과 가상으로 비상 상황을 설정해 대처하는 방법 등을 연습하게 된다.

해의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 유럽·미주 기자단이 여수를 찾아 박람회 준비 상황과 주변 관광지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조직위는 또 최근 일본의 유명 조형작가 겸 인형작가인 무토 유리코씨를 여수세계박람회 국제홍보위원으로 위촉해 일본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세계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여수세계박람회 스카이라워 파이프로간. 이 오르간은 최고 6km까지 울려 퍼질 수 있으며 오는 23일 첫 시연 된다.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 제공>

페시일로 개조한 여수 스카이라워 지상 73m 높이 파이프로간 설치 "세계서 가장 큰소리 연주" 23일 시연

세계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여수세계박람회 스카이라워 파이프로간이 오는 23일 첫 시연 된다.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동석)는 이날 정부지원위원회와 조직위원회총회 참석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카이라워 파이프로간 시연회와 기네스 동판 현판식을 갖는다.

박람회장 내에서 가장 높은 수직구조물인 스카이라워(73m)는 페시일로(버려진 시멘트저장고)를 재활용해 만들어졌고, 이 파이프로간은 스카이라워 외벽에 설치돼 있다. 평지에서는 최고 6km가

지 울려 퍼질 수 있는 최대 139dB의 소리를 내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독일 파이프로간 전문 제작사 '헤이 오르겔바우'(Hey Orgelbau)가 특별제작한 이 파이프로간은 라틴어로 '바다의 소리'라는 뜻의 '복수 마리스'(Vox maris)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한편 이날 시연회 연주는 행사 기간 동안 파이프로간 연주하게 되는 김성희·임단비씨와 딸고, 곡은 당일 공개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임문태기자 mtm@

광주시 총인시설 유지관리 연간 28억 절감 합의

광주시가 조성중인 총인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가 예초보다 매년 28억 여원이 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19일,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정책적 제안을 받아들여 시설 유지관리비를 예초 91억 원에서 28억3000만원 절감키로 시공사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병록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자치21의 정책적 제안을 수용해 지난 15일, 시공사인 대림산업 측과 총인시설 유지관리비 절감

에 관한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대림산업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당초 제시한 유지관리비 91억 원 가운데 제2하수처리장 개량에 따른 기존 슬러지처리비 9억3000만원을 제외키로 했다. 또 총인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이 일차안내서 기준보다 낮은 2010년도 평균 수질기준과 같거나 그 이하일 경우 예초 유지관리비보다 28억3000만원(슬러지 처리비 포함)이 적은 62억7000만원으로 하되, 기준을 넘어 경우에는 예초 계약에 따르기로

했다. 다만, 총인시설 유입수질이 2010년 평균 수질보다 10% 이내 변동이 있을 경우 단위 항목당 초과비용을 추가 계상하기로 했다.

이 부시장은 "이번 협약에 따라 총인시설 유지관리비 보충기간 20년을 고려할 때 총 560억여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단체의 유지비 감축 제안에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기술적, 환경적, 행정적 사항을 심도있게 분석해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형기기자 redplane@

혁신도시 국립전파연구원 내일 착공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나주시 금천면)로 이전하는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21일 오후 신사옥 합동 착공식을 갖는다.

이날 착공식은 최인기 국회의원, 박준영 도지사,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형 국립전파연구원장, 양유석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과 지역

주민 등 8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의 신사옥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 등을 갖추게 된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지상 4층·지하 1층, 연면적 1만4699㎡ 규모로 들어설게 되며 전파자원·전파환경 및 보

호에 관한 연구, 국가 정보통신 표준화 및 기술기준 연구, 정보통신기기 등에 대한 품질 인증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지상 6층·지하 1층, 연면적 1만6046㎡ 규모로 건립되고 방송·통신·전파관련 방송통신 발전기금 관리,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전파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장항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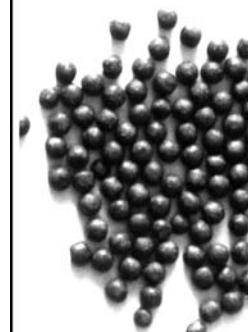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 코가 맑아지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중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동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맑힌 기운을 뽐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090204-중-4738호

못받은 돈!! 합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채권의 유형	대상 채권
상거래 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매매 채권	부동산, 동산, 준부동산
금전소비대차 채권	대여금, 투자금, 약정금, 갚은 등
임차권 채권	주택, 상가, 차량, 중기 등의 사용자 대여료, 보증금
임금 채권	급여(정규, 일용)
가사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부양
구상권	보증인 구상, 신원보증 구상, 변제구상(제3자)
기타	저작권, 부당이익, 형사 합의금, 기타

차용증, 지불각서 상담
광주시사 영업사원 모집 062-606-9006
순천지점 영업사원 모집 061-722-1930

SM 솔로몬신용정보
 대표전화 062)606-9006
 영업팀장 (문채준) 010-5311-0086

공무원 대 출

-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대상 - 현직공무원, 기능직, 교직원, 군무원
 - 한도 - 300~7000만원
 - 금리 - 연-5.9%미만 (천만원당 55만원미만)
 - 기간 - 1년~10년 중 선택 (본인선택, 연장가능)
- 과대출, 연체(등급미달)자도 가능!!
 고금리 대출 사용자 →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개인회생자, 신용불량자 → 100~500만원
-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한도는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
 (대부 제 644호)

공무원 특별자금

- 무조회 기록서비스 • 개인신원정보관리 신청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회)
 - 대출금리 | 1년 6%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과대출 | 연체(등급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가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연 5%~7.5%(은행금율) / 후순위 - 연 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대부 제 942호)